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수 있다. 지금 좋아 보이는 직업도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라짐이 확실한 몇 몇 직업을 제외한다면, 각각 직업의 생존여부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분야의 역량을 쌓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에서 미래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디지털 문해력, 창의력, 창업가 정신, 문제해결 능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공감 및 소통 능력이라고 한다. 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지원이 직접 공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보겠다.

1. 협업능력 능력은 학교에서 키워준다.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 늘 것이다.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교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직접 공부하면 늘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학원도 있지만 운이 좋아야 한다.
3. 창업가 정신은 사설을 많이(다양하게) 읽고 사회에 대해 야망(해소되지 않을 불만상태)을 유지해야 한다. 🡪 창의력도 늘어날 것이다.
4. 디지털 문해력은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를 아는게 중요하다.
5. 공감 및 소통 능력은 교우관계는 기본이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사람을 상대해 보아야 한다. 시간 남을 때마다 책을 읽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잘난 채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부담 느끼지 않게 숙여서 대화해야 한다.